산업통상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9. 20.(일) 11:00 < 9. 21.(월) 조간 > 배포 2026. 9. 18.(금)

지방에 3,918억원 투자 확정...
새 일자리 429개 생긴다

- '26년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0개 지방투자기업에 816억원(국비 560억원) 지원 결정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올해 제3차(7~9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9.16일) 결과, 지방정부가 신청한 11개 기업 중 10개 기업에 816억원(국비 56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3,918억원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고 429개의 지방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0개사는 모두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투자를 결정하였다. 강원·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등 6개 지자체가 유치한 신·증설 투자 10개사가 대상으로, 이번 지원이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개사, 억원, 명)

구분	강원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계
지원기업수	1	2	3	1	2	1	10
투자규모	741.1	537.6	1,333.6	105.2	979.0	221.8	3,918.3
신규고용	60	73	176	20	80	20	429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과 식품산업이 투자를 견인하였다. 바이오·의약품 2개사(강원 강릉, 제주)는 963억원을 투자하여 8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반도체용 소재 기업(경북 성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의 첨단산업 기반 확충이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식품 3개사(전남광주 광양, 전북 익산, 경남 양산)도 1,883억원을 투자하여 241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는 금번 회차 신규 일자리의 56.2%에 해당하는 규모로 K-푸드의 인기가 지방의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개사, 억원, 명)

구분	의약품·바이오	식품	화학·소재	기타	계
지원기업수	2	3	1	4	10
투자규모	963.0	1,882.8	105.2	967.3	3,918.3
신규고용	80	241	20	88	429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조금 제도 개편과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본격화로 지방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회차별 투자규모는 2,567억원(1차), 3,045억원(2차), 이번 3,91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올해 누적 투자규모는 9,53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등 지역이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이행하고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관리에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마지막 보조금 심의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지방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은 해당 지방정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지역경제담당관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위승복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김종성 (044-203-4423)
		담당자	주무관	이현식 (044-203-44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